

『몸의 일기』

다니엘 페나크 저·조현실 역, 문학과지성사, 2015

김 장 환*

『몸의 일기』에 대한 서평 원고를 청탁 받고 살짝 기대가 됐다. 몸의 일기라니. 주변 동료들도 책의 겉표지를 보고 이상한 상상(?)을 하며 재미있겠다는 농을 던져댔다. 띠지의 홍보 문구가 그러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했다. “배설, 성장통, 성(性), 질병, 노화, 죽음. 가식도 금기도 없는 한 남자의 내밀한 기록.” 그러나 주변 동료의 한마디나 책 띠지의 문구보다는 제목 자체에 흥미가 일었다. 몸의 일기라니. 자고로 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써 내려가는 기록이 아니었다. 그런데 몸의 일기라니. 실제로 책 속의 주인공은 1936년 9월 28일, 12세 11개월 18일이 되는 날부터 2010년 10월 29일, 87세 19일이 되는 날까지 자신의 몸을 중심으로 일기를 썼다.

무엇보다 『몸의 일기』는 인간의 ‘내면’이 아닌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개 사람들은 몸보다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몸은 그저 쾌락을 위한 도구나 수단 정도로 치부되기도 한다. 아마도 이는 방법론적 회의를 통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 이원론적인 사고는 고대 스킨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라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데카르트는 스콜라 철학과 달리 인간만이 신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송과선을 통해 정신과 육체가 교감한다는 설은 그래서 나온 거다. 그러면서도 육체와 정신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육체를 정신에 종속시켜 버렸다. 정신과 육체, 주체와 객체의 분리. 데카르트에게 있어 정신은 의심의 여지없이 ‘나’라고 하는 주체를 인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은 소위 근대철학의 근간을 이루었다. 수십년 전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면서 근대 이후를 열심히 사고하고 있다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여전히 근대적이기만 하다. 자연은 개발해야 할 대상이고, 자본가에게 노동자는 착취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객체’로 취급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오기까지 한다. 그러한 와중에 어디 감히 천한 몸이 정신하고 맞먹으려고.

사실이 길었는데, 몸의 일기를 쓴 화자는 이러한 근대적인 사고 방식과 달리 자신의 몸에 집중하여 삶을 일평생에 걸쳐 기록했다. 물론 12세에 불과한 꼬마가 이러한 철학적 사고에 근거를 두고 몸의 일기를 썼을 리는 만무하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겪은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몸에 집중하게 되었을 뿐이다. 몸은 거의 죽어가고 정신만 살아있는 아버지와, 정신적인 소통은 전혀 없이 으박지르기만 하는 엄마 사이에서 주인공은 빈약한 자신의 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국 주인공은 이원론적인 근대의 사고를 벗어나 정신이 아닌 몸에 관한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몸에 집중한 일상 아카이빙의 시작. 이렇게 난 『몸의 일기』를 일상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했다.

곽건홍은 일상 아카이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통사람들

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평가, 선별, 수집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 장소.” 이러한 일상 아카이브의 관점으로 이 일기를 독해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기 속 주인공이 단순히 몸의 생리적 변화를 기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 한 권의 책 안에는 생로병사와 중요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와 작은 역사가 일기라는 형식으로 아카이빙되어 있다.

몸의 일기를 쓴 주인공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무척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일기 속에서만큼 그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사람이다. 엘리트로서 그가 고민하는 내면적 갈등이나 변화 따위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어린 시절의 자위와 청년기에 경험한 당황스러운 성불능, 레지스탕스 활동과 첫경험, 결혼과 출산, 사랑하는 손자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촌의 죽음, 그리고 마침내는 본인의 죽음까지 미시적인 차원에서 몸의 변화에 천착하여 일상을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화자는 의도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존재의 장치로서의 몸”에 철저하게 집중한 덕에 우리는 주인공 개인의 행위와 경험이 어떻게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 가능한지 엿볼 수 있다. 일상이란 푸코식으로 보자면 규율권력과 생체권력이 작동하는 장소이기에, 몸으로 경험하는 일상에 작용하는 사회 규율과 미시 권력의 민낯을 역추적할 수 있다.

『몸의 일기』 속 주인공은 불과 13살 때 “숨 쉬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오줌 싸는 것, 똥 싸는 것, 잠드는 것 그리고 깨는 것”(42쪽)을 통해 몸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겨드랑이 냄새, 방귀 냄새 같은 생리 현상을 거쳐 청장년 시기 대부분을 성(性)과 관련된 몸의 변화에 집

중했다. 늙어서는 1분에 평균 72번 뛰는 자신의 심장에 고마워하고, “점점 짧아지는 보폭, 몸을 일으킬 때의 현기증, 굳어버린 무릎, 터지는 정맥, 또 다시 비대해진 전립선, 쉼 목소리, 백내장 수술, 이명, 광시증, 자꾸만 혈어 달걀노른자처럼 돼버린 입술 가장자리, 바지 입을 때의 어설픈 동작, 자꾸만 잊고 잠그질 않는 바지 앞 지퍼, 갑작스런 피곤”(458쪽) 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기록해나간다. 이러한 육체와 관련된 생의 순간순간들이 그에게 ‘일상’의 공간이었고, 주인공은 그 공간을 “인생이라는 임대차 계약”(459쪽)을 살아가는 곳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책 속 주인공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일상이란 우리의 몸과 단 한 순간도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다비드 르 브르통은 그의 저서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에서 “일상생활은 어른의 피난처이며, 안정감을 주는 중간 영역”이자, “(어른이) 시간을 두고 창조한 습관과 관행들, 친숙한 얼굴들로 둘러싸여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곳”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인간의 육체, 곧 몸이다.

인생의 통과 의례 중 하나인 죽음 역시 일상의 한 부분이기에, 죽음이라는 일상에서도 주인공은 몸에 집중하여 생을 기록한다. 사랑하는 손자 그레구아르가 죽자 주인공은 그 슬픔을 몸의 변화로 표현한다. 지하철에서 얼굴을 다치고, 생미셸 거리에서 자동차에 치일 뻔하고, 자동차가 길의 구덩이에 빠져 눈두덩이가 찢어지기도 한다. “슬픔에 빠진 내 뇌”가 “삶으로부터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맥락 속에서 몸의 일상이 해석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 흐름 속에서 몸으로 겪는 일상과 주인공이 레지스탕스가 되는 과정이 연결된다. 대(對) 레지스탕스용으로 비시 정부가 조직한 친독 의용대에 가입한 친구가 주인공을 찾아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침이 이마에

당은 뒤 코와 왼쪽 광대뼈 사이로 흘러내”리고 “남은 침이 입술의 왼쪽 끝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 순간 집을 떠나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레지스탕스가 된 그는 저항 활동 중에는 “배고픔, 목마름, 불편함, 불면, 기진맥진, 두려움, 외로움, 감금, 지루함, 상처”와 같은 몸이 겪는 시련을 느끼지도 못한다(137쪽). 전쟁이라는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몸이라는 일상의 공간이 주인공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준 게 아닐까.

물론 이 책은 일상 아카이브를 주제로 한 책은 아니다. 그저 한 남자가 일생 동안 몸에 관하여 기록한 일기일 뿐이다. 이제 내 나이도 불혹이라는 마흔. 주인공이 기록한 일기를 훑쳐보며, 10대부터 30대까지 겪은 몸의 변화와 그 당시의 나를 비교하고, 주인공이 마흔에 겪은 몸의 변화와 지금의 나를 대비해보게 된다. 그가 87세까지 지리하게 겪는 질병과 고통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의 미래를 예상해본다. 몸에 대하여 남이 쓴 일기를 읽으며 주욱 늘어난 의식 사이로 지난날의 추억들이 샘솟아 오르는 특이한 경험도 했고, 이미 완전히 망가져버린 기억력과 건망증, 침침해지는 눈과 관절염, 고지혈증, 그리고 주변 사람의 죽음 등등 닥쳐올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도 고민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일상 아카이브라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틀로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책이다.